

주제가이드 개선을 위한 대학생의 학술정보탐색행태 연구: C 대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o Improve Subject Guide: Focusing on C University

김아현 (Ahyeon Kim)**

이승민 (Seungmin Lee)***

초 록

본 연구는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 개발 및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도서관의 주 이용자인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술정보 탐색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자신의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검색어의 설정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 이용 목적은 구체적이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탐색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보자원 선택 시 신뢰성, 적합성, 최신성을 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 및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신뢰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학도서관에서 주제가이드를 개발하거나 개선할 때는 구체적인 정보탐색 목적에 따른 정보원 분류, 정보자원의 유형별 구성, 정보자원 선택 기준 관련 설명 요소 기술,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안내, 주제 키워드 추천, 도서관 마케팅 및 내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s, the main users of the university library, to derive consideration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subject guide of the university libra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university students highly evaluated their subjective information seeking ability, but it was found that it was difficult to set specific search terms. The purpose of using academic information is specific, and it has been shown that there is a tendency to perform all information search activities in one database. In addition, when selecting information resources, reliability, suitability, and recency are primarily taken into consideration. Awareness of university libraries and subject guides was generally low, but their reliability was found to be high. Based on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sources according to specific information seeking purposes, the composition of information resources, explanatory element technology related to information resource selection criteria, comprehensive database, topic keyword recommendation, library marketing, and close cooperation with internal institutions.

키워드: 주제가이드, 대학도서관, 학술정보탐색행태, 정보행태, 학술정보
subject guide, university library, academic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behavior, academic information

* 이 논문은 2022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dig_up0124@naver.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ableman@ca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3년 8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9월 7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9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40(3), 55-76,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3.055>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의 급격한 양적 증가 및 정보기술의 진화로 인해 정보검색은 일상적인 행위가 되었으나, 전문 학술정보의 검색은 오히려 보다 복잡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정보접근 경로의 다양화는 필요한 정보자원의 식별과 선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민윤경 외, 2020, 279-280). 또한 학술정보 이용자들은 자신이 검색한 정보의 신뢰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검색 시작점을 찾는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검색 시작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주제가이드를 들 수 있다. 다양한 학술정보를 수집, 조직, 관리, 제공하는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와 함께 여러 유형의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김혜영 외, 2021, 306).

이런 주제가이드는 탐색에 익숙한 이용자와 미숙한 이용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 어떻게 정보에 접근하는지, 정보 탐색과 관련한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주제가이드가 구축되어 있어,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집단인 대학생들이 주제가이드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곽철완, 2018, 39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제가이드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가이드의 구축이나 개선 이전에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 및 주제

가이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서비스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 내 신분(학부생, 대학원생, 교수 등)에 상관없이 복합적인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한 정보탐색 추구 행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김혜영 외, 2021, 329; 민윤경 외, 2020, 291), 이러한 이용행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재검증하고, 이를 주제가이드 개선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탐색 행태를 조사하고, 정보탐색 과정에서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 주제가이드 이용의 저해요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주제가이드 구축이나 개선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학도서관의 역할

현재 대학도서관은 대학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대학도서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자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술정보의 허브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수, 학생 등 이용자들이 손쉽게 전문적인 학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원과 편리한 시설, 그리고 전문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오은주, 김용성, 2017, 884). 이에 따라 점차 제공자 중심

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해 왔으며 사서의 역할도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나 제공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매개자로서의 기능과 정보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로 바뀌어 가고 있다(정재영, 2005, 11-12).

오늘날 정보환경의 급속한 진화로 대학도서관이 다루어야 할 지식정보는 확장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는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학술정보는 더 이상 대학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수한 서비스가 아니게 되었으며, 학술연구자들은 대학도서관을 유일한 정보원으로서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접근경로를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최민정, 2018, 8).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대학도서관의 기능을 진화시킨 방향 중의 하나로 대학도서관의 전자 학술정보 서비스를 들 수 있다. 대학도서관의 전자 학술정보 서비스의 시작은 1990년대 후반으로, 이때부터 국내 대학도서관들은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전자저널 구독이 보편화되어 대다수의 대학도서관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자 학술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김보경, 2015, 1). 현재 대학도서관은 전자저널, 전자 학술데이터베이스, 디지털화된 학위논문 등 다양한 웹 학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술정보의 탐색과 활용에 있어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민윤경 외, 2020). 특히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 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관은 적합성, 현장성, 최신성,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정보요구 충족 경험을 제공하였고, 이는 이용자들이 주요한 정보매체로 선택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김혜영 외, 2021, 330).

2.2 대학생의 정보탐색행태 연구

이용자의 경험적인 요구와 행동을 조사 및 분석하는 연구를 ‘이용자 연구’라고 하며, ‘정보 활용행태’, ‘정보탐색행태’ 연구이기도 하는 해당 논제는 정보학 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실험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다(이란주, 김수진, 2015a, 130). 1970년대까지는 공식적인 정보원과 업무 중심의 필요성에 중점을 둔 정보추구행태가 주된 연구대상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도서관 등 구조화된 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성, 검색, 이용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Case, 2016, 6).

정보행태(information behavior)가 정보원 및 정보채널과 관계된 인간 행태의 총체인 것과 달리, 정보탐색 행태(information seeking behavior)는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특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도서관과 같은 수동 정보시스템이나 웹과 같은 컴퓨터 기반 시스템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Wilson, 2000, 49-50). 이런 정보탐색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 상황, 관심의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보탐색 행위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Case, 2016, 5-6). 이에 여

리 기관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탐색 행위와 관련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정보탐색 행위를 학술정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관점에서 정보탐색행태(Information seeking behavior)를 포괄적인 정보행태가 아닌, 목적과 필요에 따라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정보를 찾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정보라는 개념 역시 매우 포괄적이며 인간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의미적 범위를 넓은 의미에서의 정보에 관한 탐색 행태가 아니라, 학술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학술정보와 관련된 탐색 행태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술정보 탐색 행태 관련 연구는 문헌정보학 내에서 전 주제분야 연구자에 대한 정보이용행태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 왔다. 하나의 주제분야 뿐만 아니라, 각 주제분야를 비교하는 연구, 특정 신분(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등)에 따른 연구, 대학 구성원 전체를 분석하는 연구도 실시되었다.

배경재(2010)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 이용자들을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구분 및 한정하여 정보 요구와 이용 패턴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정보 요구 및 정보탐색행태가 서로 다른 경향이 존재했다. 학부생의 경우, 대학원생에 비해서 정보 만족도가 현저히 낮았고, 필요한 정보의 형태도 비교적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또한 학부생의 정보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정보활용태도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보여 학부생과 대학원생 간의 차이를 강조하며 향후 학부

생 대상의 세분화된 정보 서비스는 해당 대상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Niu(2012)는 현재 과학자들의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할적 요인, 환경적 요인, 심리적, 역할 관련,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과학자들의 특정 정보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학계에서의 지위, 즉 역할적 요인이 정보이용행태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혀냈다.

Komissarov & Murray(2016)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전자 편의성에 높은 가치를 두며, 거의 40%의 학생이 정보 탐색 시작점으로 Google.com을 선택하고 원문 이용 기능에 대해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알아냈다. 동시에 정보이용행태는 교수자의 격려와 사서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발견했다.

곽철완(2017)은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생활태도와 특성이 정보활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해당 연구를 통해 전공계열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공계열과 도서관 이용 빈도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민윤경 외(2020)는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정보이용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대학 구성원의 심층면담 결과를 해석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 구성원들은 이전 연구보다 더욱 융복합적인 성격의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화된 정보요구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폭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보였다. 그러나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낮은 인지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외(2021)는 대학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를 환경변화, 정보요구, 정보행위를 3개의 축으로 구성함으로써 분석하였다. 이용자들은 정보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고, 변화 속에서 6가지 특성을 띠는 심층적 정보요구 역시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개인화 서비스, 세부적인 정보 요구에 맞는 서비스, 신뢰성, 정보매체활용 정보와 방법 제공 등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주제분야에 따라 차이점은 존재하며, 특히 대학 내 신분에 따라 유의미한 정보이용행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결과가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좀 더 발전하고 복잡해진 정보 환경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이용행태는 융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기존의 연구가 현재와 맞지 않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김혜영 외, 2021, 327). 그러나 정보탐색행위 분석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분석을 함과 동시에 주안점을 실질적이고 유효한 정보서비스 개발에 둔 연구는 의미가 있다. 이에 해당 논문에서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와 동시에 전체적인 주제분야의 이용행태 변화를 알기 위하여 전주제분야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특정 신분의 정보이용

행태이자, 전 주제분야 정보이용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

주제가이드는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 연구자들을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 및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구조화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패스파인더(pathfinder)가 소장 장서를 중심으로 특정 주제분야의 정보원을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주제가이드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 모두를 포함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패스파인더에 비해 보다 발전된 주제서비스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김진선, 2015, 12). 주제가이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어 왔는데, 관점에 따라 주제서지나 체크리스트,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시발점이나 접근점, 참고정보원 또는 안내도구, 정보서비스 자체로 정의하는 관점도 제시되어 왔다(김진선, 2015, 12).

이외에도 연구가이드(research guide), 연구도구(research tool), 디지털 가이드(digital guide), 웨블리오그래피(webliography), 인터넷 자원 컬렉션(internet resource collection), 정보자원 리스트(resource list), 주제 포털(subject portal) 등 주제가이드는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어 왔으나(Tchangalova & Feigley, 2008, 2), 이들 모두는 공통적으로 초기 연구자들을 위해 도서관의 참고정보원을 구조화하여 안내해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참고정보원은 도서관 소장장서뿐만 아니라, 구독 학술지, 색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 및 전자정보원까지 포함하

는 개념이다. 특히 최근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은 서지정보 파악과 함께 원문을 직접 입수하는 것을 선호하며, 따라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주제가이드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김진선, 2015, 15). 또한 주제가이드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탐색 전략을 안내하고, 주제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하거나 연구 수행 과정을 안내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노영희, 박양하, 2014, 3).

대학도서관이 대학 구성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도서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김진선, 2015, 1), 온라인 주제가이드의 체계적인 구성 및 제공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초기 연구자들에게 양질의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제공하는 주제가이드는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의 7대 추진과제 중 '연구지원 큐레이션 서비스'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용재, 이지욱, 2020, 317), 대학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4년제 대학도서관 66개관을 분석한 결과, 주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총 23개교(3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재, 이지욱, 2020, 317). 또한 동일한 주제분야라 하더라도 이용자의 전문성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상이한 정보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이드는 계획 초기부터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면밀하게 분석하

여 설계되어야 한다(배경재, 2010, 171).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제가이드는 일부 학과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거나 포괄적인 측면으로 주제가이드가 구축되어 있어, 대학 구성원 중 전문연구자가 아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주제가이드를 이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곽철완, 2018, 39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구성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 개선을 위한 방안 및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연구대상 및 방법

이용자 정보탐색행태는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행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정보이용행태 관련 연구는 특정 분야의 전임교원이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거나(윤정옥, 2009; 이란주, 김수진, 2015b), 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체 이용자 및 전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김혜영 외, 2021; 노영희, 왕동호, 2022)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대학도서관의 경우, 대학 내에서의 지위에 따른 학문적 수준은 정보탐색의 중요한 결정요인 중 하나이다(Niu & Hemminger, 2012, 352). 특히 학부 과정의 대학생은 자신의 소속 학과와 관계없이 개인의 정보활용 역량에 따라 광범위한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자료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김혜영 외, 2021, 327) 학습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정보탐색행위를 수행한다는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대학도서관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학술정보의 제공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포괄적인 정보탐색행위라는 특성을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제가이드의 구축 및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정보의 이용 빈도가 높고 기존 세대와는 상당히 다른 정보행태를 보이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한 학술정보 이용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학생의 학술정보 이용행태를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도권 소재 종합 사립대학교인 C대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C대학교연구대학(사립) 기준, 571,455종의 전자정보자원을 보유하고 전체 전자정보자원 보유 순위 5위인 동시에(한국교육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전자서비스 통계, 2021), 대학도서관에 주제정보서비스 팀을 운영하고 있다. 주제가이드는 기본적으로 주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이며 주제가이드 구축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 등의 전문적인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제전문사가 존재하는 대학도서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이용행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2 설문항목 구성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

식 및 학술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선행연구로부터 정보탐색행태 및 주제가이드의 핵심 요인들을 도출하여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술정보 이용행태, 도서관 주제가이드 서비스의 3개 항목,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술정보 이용행태와 관련해서는 학술정보 이용 목적, 학술정보에 대한 요구, 학술정보 이용 유형, 만족도, 선호하는 학술정보의 유형, 선호하는 데이터베이스 등을 주요 요인으로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주제가이드와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어떤 목적학술정보탐색을 수행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 사용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이들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관련한 문항을 도출하였다. 학술정보탐색을 수행하는 이용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학술정보탐색 능력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 학술정보탐색 시작점에 대한 인지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항목의 사전검증을 위해 C대학 대학생 7명을 대상으로 사전테스트를 실시한 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주제분야에 따른 학술정보 이용행태 분석을 위해 2021년 해당 대학의 학과 및 단과대학을 기준(중앙대학교, 2021)으로 주제분야를 구성하였으며, 학술정보 탐색행위의 익숙함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학 학년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설정하였다(〈표 1〉 참조).

설문조사는 Google 폼을 이용하여 2022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집된 총 259부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 설문항목 구성

대분류	항목	참고문헌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년	
정보탐색행태	주제분야(단과대학, 학과)	중앙대학교(2021)
	자신의 정보탐색능력 수준	김지현, 서은경(2015); 이란주, 김수진(2015b)
	학술정보 이용 목적	김지현, 서은경(2015); 이란주, 김수진(2015b)
	정보탐색 시작점	Komissarov & Murry(2016)
	전자정보자원/인쇄정보자원 선호도	이란주, 김수진(2015b)
	학술정보자원 유형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김혜영 외(2021)
	정보자원 선택 기준	김혜영 외(2021)
	정보수집의 어려웠던 점	민윤경 외(2020)
	정보탐색도움 요청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2011)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란주, 김수진(2015b)
	학술데이터베이스 선택 기준	노영희, 왕동호(2022)
	정보수집의 어려웠던 점	민윤경 외(2020)
도서관 주제가이드 서비스	주제가이드 인식 여부	-
	주제가이드 만족도	-
	주제가이드 분류 체계 관련 개선방안	-
	주제가이드 정렬방식 관련 만족도	-
	주제가이드 정렬방식 관련 개선방안	-
	주제가이드 개발 시 필요한 부분 관련 의견	-

4. 분석결과

4.1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응답자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63명(24.32%), 2학년 59명(22.78%), 3학년 56명(21.62%), 4학년(수료 포함) 88명(33.98%)으로 대부분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소속 단과대학 별로는 사회과학대학 77명, 경영경제대학 39명, 예술대학 29명, 공과대학 28명, 인문대학 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외 단과대학도 10명 내외로 나타나, 주제분야를 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4.2 학술정보 이용 목적 및 주관적 정보 탐색능력 수준

4.2.1 학술정보 이용 목적

모든 학술정보는 이용자가 특정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집되며, 그 의도에 따라 수집 방법 및 정보의 형태까지 정보이용행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이용의 목적은 학업과제 수행이 242건(40.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논문 작성 134건(22.02%), 프로젝트 및 공모전 기획 110건(18.04%)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학술정보 이용 목적을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업과제 수행이 1학년 62

〈표 2〉 인구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학년	1학년	63	24.32
	2학년	59	22.78
	3학년	56	21.62
	4학년	88	33.98
	합계	259	100
소속 단과 대학	사회과학대학	77	29.73
	경영경제대학	39	15.06
	예술대학	29	11.20
	공과대학	28	10.81
	인문대학	25	9.65
	창의 ICT 공과대학	11	4.25
	약학대학	10	3.86
	생명과학대학	10	3.86
	기타 대학	30	11.58
	합계	259	100

〈표 3〉 학술정보 이용 목적(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학업과제 수행	242	40.07	강의 준비	22	3.64
논문 작성	133	22.02	기술문제 해결	18	2.98
프로젝트 및 공모전 기획	109	18.04	연구 기획	14	2.32
동향 파악	61	10.10	기타(호기심, 흥미)	5	0.83
-	-	-	합계	604	100

건, 2학년 58건, 3학년 49건, 4학년 73건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대학생의 학술정보 이용은 광의적이기보다는 강의를 위한 학업 과제와, 개인 프로젝트 및 공모전 등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단순 호기심’으로 학술정보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5건(0.83%)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능동적이고 세부적인 정보탐색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순수한 지적 호기심으로 학술정보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은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4.2.2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

개인의 정보탐색능력에 대한 긍정적 인지 여부는 크게 보면 정보검색이나 정보활용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Chang et al., 2009, 457). 이에 본인이 인지하는 자신의 학술정보 탐색능력을 ‘주관적 정보탐색능력’으로 정의하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에 대한 전체 평균은 3.65로 대학생들은 본인의 정보

탐색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보탐색능력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총 20명(7.72%)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한 인원은 2학년 1명, 3학년 2명으로 분석되었다(〈표 4〉 참조).

〈표 4〉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

구분	빈도(건)	비율(%)
매우 낮다	3	1.16
낮은 편이다	17	6.56
보통이다	80	30.89
높은 편이다	125	48.26
매우 높다	34	13.13
합계	259	100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에서 학년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표 5〉 참조), 2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스스로 자각하는 정보탐색능력이 낮은 것은 학년이 올라가며 기초 지식만 배우던 1학년 때와 달리 좀 더 심화전공을 배우게 되어 필요한 학술정보가 많아지고, 자신이 검색한 학술정보 이외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스스로가 인지하는 정보탐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후 경험 축적에 따라 검색 능력

이 필요 요구에 맞게 향상되면서, 3학년부터는 다시 자신감을 회복하여 4학년에서 가장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학과별 혹은 주제분야별 정보탐색능력 수준에 대한 인식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탐색에 익숙한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과학대학의 학생이 정보탐색능력 수준이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나(곽철완, 2017, 166),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22명의 문헌정보학과 학생 평균은 3.50으로 전체 평균(M=3.65)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문헌정보학과를 제외했을 때 사회과학대학의 평균(M=3.94)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보면, C대학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인의 정보탐색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전체 평균 및 사회과학대학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검색 관련 전공수업이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 존재하지만, 학업과정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만큼 요구하는 수준 역시 높아져 스스로가 인지하는 정보탐색능력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과 정보이용행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정보탐색능력이 높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정보이용행태를

〈표 5〉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 학년별 평균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평균	3.61	3.50	3.60	3.82

〈표 6〉 정보탐색능력 수준 주제 분야별 평균

주제 분야	예체능	공학계	자연과학	의학	인문계열	경영	사회과학
평균	3.50	3.55	3.66	3.62	3.7	3.71	3.74

분석한 결과, 총 34명 중 11명이 주제가이드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주제가이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4.45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 정보탐색능력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20명의 경우, 주제가이드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2명에 불과하며, 국내 종합 학술 데이터베이스만을 단일 이용하는 응답자가 1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4.3 정보탐색방법

4.3.1 주 이용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탐색 시작점

주 이용 학술 데이터베이스(복수응답)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38명(91.89%)이 국내 종합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학회 웹사이트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16건(4.40%)으로 가장 낮았으며, 해외 종합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은 51건(14.96%)으로 국내 종합 학술 데이터베이스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정보탐색의 시작점으로 도서관 목록, 도서관 웹사이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202건(42%)으로 Google 검색의 199건(39%)보다 높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Komissarov & Murry, 2016, 424), C대학교 학생의 경우 정보탐색 시작점으로 포털사이트 검색(네이버, Google)이 179건(69.1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을 정보탐색 시작점으로 활용하는 응답은 11건(4.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와 같이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도서관 제공 서비스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도, 도서관은 73건

(28.19%)으로 포털사이트에 비해 정보탐색 시작점으로서의 활용 빈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표 7> 참조). 이를 통해 보면, 대학생들은 정보탐색 시작점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목록이나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보다는 포털사이트의 편의성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정보탐색 시작점

구분	빈도(건)	비율(%)
포털사이트 검색(네이버, 구글)	179	69.11
학술DB(DBpia, RISS)	62	23.94
도서관	11	4.25
참고문헌	3	1.16
기타(SNS, 뉴스 등)	4	1.54
합계	259	100

4.3.2 정보수집 과정의 어려운 점과 해결방법
 학술정보 탐색에서의 어려움(복수응답)으로는 '검색어를 구체화하기 어려움'이 155건(26.9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정보가 너무 많음'이 108건(18.75%)으로 나타났으며, 정보탐색의 시작점과 관련해서는 '시작점 자체를 잡기 어려움'이 82건(14.24%)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8> 참고). 추가적으로, 자율형 주관적 응답 83건에서도 '검색 능력의 한계'가 25건(30.12%), '검색어 설정의 어려움'이 20건(2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인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의 접근경로 확인, 검색을 위한 정확한 용어의 결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은 자신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검

색된 결과의 정제와 조정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 8〉 학술정보탐색 시 어려운 점(객관식)
(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검색어를 구체화하기 어려움	155	26.91
정보가 너무 많음	108	18.75
최신정보가 적음	97	16.84
정보가 너무 적음	84	14.58
시작점자체를 잡기 어려움	82	14.24
가격이 부담됨	53	9.20
합계	576	100

정보탐색 과정에서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135건(52.12%)이 포털사이트의 도움을 받는다고 나와, 전체적인 정보탐색 과정에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도 49건(19.31%)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은 상호 간에 비공식적으로 정보교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문헌에 수록된 참고문헌 정보를 이용하는 체이닝(chaining) 검색 방법을 활용한다는 응답은 31건(11.97%)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응답 역시 22건

(8.47%)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도서관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응답은 17건(6.56%)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정보탐색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표 9〉 참조).

4.4 학술정보자원 선호도 및 정보자원 선택 기준

4.4.1 학술정보자원 유형 및 형태 선호도

대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를 입수할 때, 학술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정보자원의 형태와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학생이 학술정보를 입수할 때 가장 선호하는 개별 정보자원 및 정보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학술정보자원의 유형과 관련한 선호도는 학위논문이 191건(13.63%), 학술지 논문이 177건(12.6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10〉 참조). 뉴스 역시 172건(12.28%)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보면 온라인에서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길이가 짧으며 주제 특화적인 학술논문과 최신성이 높은 뉴스 정보자원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의 1차 정보원에 대한

〈표 9〉 정보탐색 과정에서의 조언을 구하는 방법

구분	빈도(건)	비율(%)
포털 사이트(네이버, 구글)	135	52.12
지인(교수, 선배, 동료 등)	50	19.31
참고문헌	31	11.97
인터넷 커뮤니티(에브리타임, 김박사넷 등)	22	8.49
도서관	17	6.56
기타(SNS, 학술지, 포기)	4	1.55
합계	259	100

〈표 10〉 학술정보자원 유형 선호도(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학위논문	191	13.63	동영상	85	6.07
학술지논문	177	12.63	학회관련자료	85	6.07
뉴스	172	12.28	서지·초록·색인	21	1.50
통계자료	138	9.85	원데이터	16	1.14
단행본	137	9.78	특허정보	9	0.64
보고서	129	9.21	회색문헌	8	0.57
정부자료	118	8.42	기타	8	0.57
용어사전	107	7.64	합계	1,401	100

선호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보원의 경우는 서지, 초록, 색인이 21건(1.50%)으로 1차 정보원에 비해 매우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동영상 자료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종합 학술정보 포털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콘텐츠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으나(노영희, 왕동호, 2022, 60), C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동영상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85건(6.07%)으로, 학술정보에서 동영상 자료 선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정보원이나 인쇄정보원과 같은 정보자원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총 165명(63.71%)의 응답자가 전자정보자원을 선호하였으나, 전자정보자원과 인쇄정보자원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 역시 87명(33.59%)으로 나타나 아직까지

인쇄정보자원의 활용도 및 선호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1〉 참조). 선행연구에서는 인문학자들이 인쇄형태 정보자원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나(윤정옥, 2009, 15),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인문계열을 포함한 전 분야의 전자자원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자정보자원과 인쇄정보자원을 모두 사용한다는 응답에서는 87명 중 22명(25.29%)이 공학계열로 나타나,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학문 분야 사이의 융복합성을 요구하는 정보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2 학술정보자원 선택 기준

학술정보자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총 229명(30.95%)이 신뢰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표 11〉 주로 이용하는 정보 형태

구분	빈도(건)	비율(%)
전자정보자원과 인쇄정보자원 모두 사용	87	33.59
전자정보자원	165	63.71
인쇄정보자원(비전자정보자원 포함)	7	2.70
합계	259	100

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적합성 205명(27.70%), 최신성 189명(25.54%)으로, 신뢰성과 적합성, 최신성이 학술정보자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고려사항으로 분석되었다(〈표 12〉 참조). 학술정보 이용자들은 최신 연구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요구를 계속해서 보여 왔으나(김혜영 외, 2021, 316),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술정보자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술정보의 신뢰성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최신 동향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가장 빈도수가 낮았던 유일성과 현장성의 경우, 특정 학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유일성 16건 중 5건이 예술대학 학생이었으며, 이외에는 다양한 학과생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현장성 15건 역시, 경영경제대학 학생이 6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후 사회과학대학생이 5건, 나머지 학과가 고루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낮은 비율이긴 하나, 경영경제 분야에서는 현장성에 대한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일성의 경우 예술계열에서 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선택 기준과 관련해서는, 원문 이용 여부가 152건(18.38%)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대학생들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자원의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록, 서지 등 2차 정보원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검색의 편리성이 127건(15.35%)으로, 정보자원 유형의 다양성(115건, 13.91%)이나 수록된 정보자원의 양(108건, 13.06%)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면 대학생들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익숙함을 포털서비스 및 다양한 정보서비스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나(노영희, 왕동호, 2022, 56-57), C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익숙함이 42건(5.08%)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대학생들은 학술정보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학술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서비스나 인터페이스(89건, 10.76%)보다는 원문이용 가능 여부(152건, 18.38%), 검색 기능의 편리성(127건, 15.36%)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

〈표 12〉 학술 정보자원 선택 기준(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신뢰성	229	30.95	익숙함	26	3.51
적합성	205	27.70	이미지여부	22	2.97
최신성	189	25.54	유일성	16	2.16
비용	38	5.14	현장성	15	2.03
-	-	-	합계	740	100

〈표 13〉 학술 데이터베이스 선택 기준(복수응답)

구분	빈도(건)	비율(%)	구분	빈도(건)	비율(%)
원문 이용 가능 여부	152	18.38	직관적 인터페이스	89	10.76
검색 기능의 편리성	127	15.35	비용	43	5.20
다양한 정보자원 유형	115	13.91	익숙함	42	5.08
최신성	108	13.06	해외정보자원 이용 가능 여부	31	3.75
수록된 정보자원의 양	108	13.06	유일성	12	1.45
-	-	-	합계	827	100

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때 정보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록된 정보자원의 양보다는 한 번에 다양하고 많은 정보자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자 하며(223건, 26.97%), 이로 인해서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3〉 참조).

4.5 주제가이드 인식 평가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11명(81.47%)이 주제가이드 서비스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가이드를 인식하고 있는 48명의 경우(18.53%)는 주관적 정보 탐색 능력 수준 인식이 평균 3.8로 전체 평균은 3.65보다 높았다. 학술정보 탐색 자체에 관심이 있고, 능동적이며 자신이 있는 대학생일수록 대학도서관의 서비스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 중 16명이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 전공 수업과 관련있는 특별히 대학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또한, 학년 별 인식에서는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8명 씩, 3학년과 4학년이

각 16명 씩 분포되어 있었다. '기초적인 학술정보서비스'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1학년과 2학년보다 고학년인 3학년과 4학년이 주제가이드를 인식하고 있어, 대학교 입학 및 대학도서관 초기 이용 시 주제가이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제가이드를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 주제가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는 평균 3.58로 나타나, 학술정보 탐색 시 주제가이드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학문 분야별 분류를 비롯하여 근본적인 정보가 적다는 의견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도 이외에,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웹 데이터베이스를 배열하고 분류하는 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은 '주제별 분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횟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 권위 등과 같은 신뢰도에 따른 주제가이드의 배열에 대한 요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제가이드가 새롭게 개발될 경우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류(키워드 기반, 최신성 반영) 및 다양한 주제 분류, 학술정보자원 확충, 검색 기능 향

상, 적극적 홍보 및 접근성 개선, 인터페이스 향상, 키워드 추천 및 다양한 추천 기능 향상, 다양한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대학생들은 주제가이드에서의 학문 분야별 혹은 주제별 분류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주제가이드 이용행태를 반영한 부가적인 분류체계의 필요성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키워드에 대한 요구와 추천 기능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가이드라인 역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4〉 참조).

4.6 주제가이드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

주제가이드는 대학도서관의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

다. 하지만 주제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정보이용행태, 정보탐색행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의 교육, 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주제가이드는 학술정보의 탐색, 접근, 활용에 있어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대학생들이 주제가이드를 활용하거나 주제가이드 서비스에 대해 인식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정보탐색행태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대학도서관에서 주제가이드를 구축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은 학업 및 과제 수행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학술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주제가이드 이용 목적을 세부적으

〈표 14〉 향후 주제가이드 개발 및 개선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

구분	세부 내용	빈도(건)
분류 체계 구체화 및 다양화	주제 다양화(전 학문 참여), 신뢰도-최신성 반영 나열, 구체화된 분류(세부 키워드 위주 등)	13
검색 기능 향상	정확율 향상, 서술형 검색, 상세 검색 기능	12
학술정보자원 확충	최신 자료, 예술 자료, 특정 협회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사이트와의 제휴 확충	11
접근성 개선	적극적 홍보와 쉬운 접근성	6
인터페이스 향상	잘 정리된 목록,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	6
추천 기능 (알고리즘의 정확화 및 강화)	이용자 데이터 기반의 자료자동추천, 연계주제 추천, 유사 논문 추천, 주제별 학술지 사이트 추천, 각 학과별 인기 자료 혹은 검색어순위	6
키워드 추천	연구동향 키워드, 주제 관련 전문용어 추천	6
가이드라인	검색 안내 서비스, 정보요구를 구체화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상세 검색 사용법, 메인 페이지에 사용 방법 안내	6
필터링 기능 개선	필터링 기능	5
쉬운 검색 기능	쉽고 간편한 검색 기능	3
기타 의견	원문 접근 기능 향상, 사용자의 목적 반영, 원하는 부분만 나오는 목록, 편의성, 인용 정보 관련 기능 개선, 예산 추가 지원, 최근 떠오르는 신기술 등 빠르게 표기	9
합계		83

로 파악하여 주제가이드 구축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주제가이드의 분류에 있어서 학문 분야별 분류 이외에 주제가이드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부가적으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주제가이드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습 이외에 학술적 탐구활동을 지원하고 학술적 흥미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학문 분야에 대한 정보원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웹 기반의 정보탐색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주제가이드' 혹은 '초보자를 위한 이용 교육' 등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라고 인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제분야, 전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세부적인 정보유형별 주제가이드 등으로의 주제가이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술정보자원 및 주제가이드의 선택 기준에서 대학생은 신뢰성, 적합성, 최신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이드를 구성할 때 이들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유일성과 현장성과 같이 특정 계열(경영경제: 현장성, 예술: 유일성)이 선호하는 정보 선택기준 역시 있을 수 있으니 각 계열의 특성과 차이점을 섬세하게 살펴 각 학과에 적합한 정보자원을 선택해야 한다.

넷째, 정보탐색행위의 시작점이 종합 데이터베이스와 포털사이트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술 데이터베이스 선택 기준에서는 원문 이용 가능여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주제가이드의 구성에 있어서는 원스톱 서비스의 형태로 정보탐색과 원문 제공이 가능한 방향으로

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인쇄정보원'에 대한 큐레이션 역시 필요하다. 여전히 전자정보자원과 인쇄정보자원을 모두 사용하는 비율이 87명(33.59%)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는 대학도서관만의 여전한 특화점이 될 수 있다. 웹 정보자원 원문 제공과, 바로 인쇄정보자원의 학술정보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다섯째,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어 추천을 주제가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정보탐색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검색어 구체화, 시적점 설정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술정보 검색 능력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정보요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이를 정보탐색으로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주제가이드에 키워드를 추가한다면 이용자의 초기 정보탐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가이드의 개발과 제공을 위해서는 주제가이드에 대한 홍보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전체 학술정보탐색 과정에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매우 큰 반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보탐색 과정에서 대학도서관의 위상과 신뢰도는 높으나, 활용성이나 친숙함 및 인식은 낮기 때문에, 주제가이드의 효용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학술정보탐색 과정에서 주제가이드의 효용성을 대학생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3학년과 4학년이 1학년 및 2학년에 비해 2배 많았기 때

문에 대학도서관 이용 초기(대학교 입학 직후)에 주제가이드에 대한 홍보가 집중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도서관이 구독 및 소장하고 있는 학술정보자원을 주기적으로 큐레이션하고, 여러 학과와 협업하여 학기 초에 학문 분야와 관련한 주요 기초 정보자원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최신 동향을 주제가이드에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개별 학과 및 계열과의 긴밀한 연결은 대학도서관이 전문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으며, 학과와의 연계를 통한 학술정보의 제공은 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이용 행태와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가이드의 구축과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C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술정보 이용 행태 및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가이드의 개선에 적용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은 학업과제 등 구체적인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학술정보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정보탐색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뢰성, 적합성, 최신성을 확보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하며,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든 정보탐

색 행위를 수행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술정보 탐색 과정에서는 검색 능력의 한계, 검색어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신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탐색 과정에서는 포털사이트에 비해 대학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주제가이드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주제가이드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은 주제가이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 주제가이드를 구축 혹은 개선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주제가이드 이용 목적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주제가이드 구축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주제분야, 전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세부적인 정보유형별 주제가이드 등으로의 주제가이드 서비스 제공의 범위와 방식의 확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성, 적합성, 최신성을 반영하여, 주제가이드 내 자원의 선택 및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학과 별 정보 선택 기준도 반영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털사이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제가이드의 구성을 정보탐색과 원문 제공 및 인쇄자료 제공까지 포괄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술정보 탐색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술정보 활용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어 추천을 주제가이드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제가이드 이용 경험이 있는 이용자들의 주제가이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제가이드에 대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 주제가이드의 이용자 유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가이드는 신뢰성 있는 자원을 식별하고 안내해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지식정보적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정보서비스이다. 또한 주제가이드는 자관의 정보 조직 및 관리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학도서관의 효용성과 권위를 대학 구성원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고, 기존 연구지원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대규모 주제정보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정 대학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대학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집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술정보탐색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가이드의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제가이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주제가이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곽철완 (2017). 대학생의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탐색행동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2), 157-178.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157>
- 곽철완 (2018).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381-400.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381>
- 김보경 (2015). 대학원생의 해외학술정보 검색을 위한 구글스칼라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정환, 김재훈, 황재영 (2011). 디지털 환경에서 학술연구자들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3), 189-208. <https://doi.org/10.16981/kliss.42.3.201109.189>
- 김지현, 서은경 (2015). 법무실무를 위한 변호사의 법률정보 추구행태 탐구. 정보관리학회지, 32(4), 55-76. <https://doi.org/10.3743/KOSIM.2015.32.4.055>
- 김진선 (2015). 대학도서관 온라인 주제가이드 개발 가이드라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 김혜영, 김기영, 민윤경, 이지연 (2021). 대학도서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이용자 정보요구 및 정보행위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2), 305-336.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305>
- 노영희, 박양하 (2014). 정책분야 주제가이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3), 63-92. <https://doi.org/10.16981/kliss.45.3.201409.63>
- 노영희, 왕동호 (2022). 대학생들의 학술정보 포털에 대한 이용 및 수요분석: ScienceON을 중심으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1), 47-6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47>
- 민윤경, 김기영, 이지연, 김혜영, 서정선, 이고은, 이나리, 정민지, 채현수 (2020). 대학 구성원의 정보요구 및 행위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269-297.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269>
- 배경재 (2010).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 서비스 대학 이용자의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차이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57-176.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157>
- 오은주, 김용성 (2017). 대학도서관 이용자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2), 883-890.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157>
- 윤정옥 (2009). 인문학자의 전자정보원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2), 5-2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005>
- 이란주, 김수진 (2015a). 주제별 연구자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29-15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 이란주, 김수진 (2015b). 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학분야 연구자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279-30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279>
- 이용재, 이지옥 (2020). 국내 대학도서관 연구지원서비스의 현단계.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1), 305-327.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305>
- 정재영 (2005). 대학도서관의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한 주제화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중앙대학교 (2021). 중앙대학교 2021 통계연보, 중앙대학교 홈페이지.
출처: <https://ibook.cau.ac.kr/Viewer/988RSH1FBKCV>
- 최민정 (2018). 사회과학분야 대학원생의 대학도서관 전자학술정보 서비스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1. 3. 1). 기본검색_전자서비스. 학술정보통계시스템(Rinfo).
출처: <http://www.rinfo.kr/>
- Case, D. O. & Given, L. M. (2016).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4th ed. United Kingdom: Emerald.
- Chang, C., Lin, C., Chen, Y., & Chin, Y. (2009). Predicting information-seeking intention in academic digital libraries. The Electronic Library, 27(3), 448-460.
<https://doi.org/10.1108/02640470910966899>
- Komissarov, S. & Murray, J. (2016). Factors that influence undergraduat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and opportunities for student success.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42(4), 423-429.
- Niu, X. & Hemminger, B. (2012). A study of factors that affect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cademic scientis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ni and Technology*, 63(2), 336-353.

Tchangalova, N. & Feigley, A. (2008). Subject guides: putting a new spin on an old concept. *Electronic Journal of Academic and Special Librarianship*, 9(3), 1-23.

Wilson, T.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Science*, 3(2), 49-56.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Bae, KyungJae (2010).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of information needs and usages among academic user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157-176.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157>

Choi, Min Jeong (2018).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Use for Electronic Scholarly Resources Service of University Libraries: With Emphasis on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Scienc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Chung, Jae Young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bject-Divisional Plan Model for the Efficient Reference Service of University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im, JiHyun & Seo, EunGyoung (2015). Exploring the lawyers' legal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for the law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2(4), 55-76. <https://doi.org/10.3743/KOSIM.2015.32.4.055>

Kim, Bokyeong (2015).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Google Scholar Among Graduate Students for Searching Foreign Academic Resource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Kim, Hyeyoung, Kim, Giyeong, Min, Yoonkyung, & Lee, Jeeyeon (2021). A study on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 for the development of academic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2), 305-336. <https://doi.org/10.3743/KOSIM.2021.38.2.305>

Kim, JeongHwan, Kim, Jaehoon, & Hwang, JaeYoung (2011). A study on information users'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doctoral researchers in digital ag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ociety*, 42(3), 189-208. <https://doi.org/10.16981/kliss.42.3.201109.189>

Kim, JinSeon (2015). A Study on Developing GuideLines for Online Subject Guides in University Library.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Kwack, Chulwan (2018). A study on online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381-400.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381>
- Kwak, Chulwan (2017). A study of student search behavior in an academic library: us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2), 157-178.
<https://doi.org/10.4275/KSLIS.2017.51.2.157>
- Lee, LanJu & Kim, Su-Jin (2015a). A study on the literature review of information use behavior in specialized field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129-153.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2.129>
- Lee, LanJu & Kim, Su-Jin (2015b). A study on the information use behaviors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for improving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279-302.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1.279>
- Lee, YongJae & Lee, Ji-Wook (2020). A study on the present stage of research support services of academic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1), 305-327. <https://doi.org/10.16981/kliss.51.1.202003.305>
- Min, Yoonkyung, Kim, Giyeong, Lee, Jee Yeon, Kim, Hyeyoung, Seo, Jung Sun, Lee, Go Eun, Lee, Na Ri, Jung, Minji, & Chae, Hyun Soo (2020). An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on university members'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s.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269-297. <https://doi.org/10.4275/KSLIS.2020.54.2.269>
- Noh, Younghee & Park, YangHa (2014). A study on developing the policy areas subject gui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63-92.
<https://doi.org/10.16981/kliss.45.3.201409.63>
- Noh, Younghee & Wang, Dongho (2022).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use and demand for academic information portals: focusing on Science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1), 47-65.
<https://doi.org/10.4275/KSLIS.2022.56.1.047>
- Oh, Eunjoo & Kim, Youngseong (2017). College library user stud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2), 883-890.
<https://doi.org/10.4275/KSLIS.2010.44.2.157>
- Yoon, CheongOk (2009). Research on the usage of electronic information resources of the humanities scholar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2), 5-28. <https://doi.org/10.4275/KSLIS.2009.43.2.005>